

# JW생명과학 3세대 영양수액 첫 수출 최대시장 ‘유럽’에 뜬다

3체임버 종합영양수액제 ‘피노멜’  
품질검증 마치고 본격 출하 시작

JW가 기술혁신을 통해 개발한 3세대 종합영양수액제가 첫 수출 길에 올랐다. 세계 최대 시장인 유럽으로 종합영양수액 완제품을 수출하는 첫 사례다.

JW홀딩스의 자회사 JW생명과학은 유럽시장에 선보일 3체임버 종합영양수액제 피노멜(FINOMEL, 국내 제품명 위너프)에 대한 품질 검증 과정을 마치고 본격 출하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항에서 첫 선적될 피노멜은 수액제 분야 세계 최대 기업인 박스터를 통해 시판 허가가 완료된 영국을 비롯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국가에 공급된다.

아시아권 제약사가 종합영양수액 완제품을 세계 최대 시장인 유럽에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산 시설 기준으로는 비(非)유럽권 공장 중 최초다.

JW생명과학은 지난 2013년 박스터와의 독점 라이선스 계약 이후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3체임버 종합영양수액제 전자동화 생산라인을 증설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유럽연합 우수의



JW홀딩스의 자회사 JW생명과학이 11일 유럽시장에 선보일 3체임버 종합영양수액제 피노멜에의 본격 출하를 시작했다. 피노멜 적재를 마친 차량 앞에서 JW생명과학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약품제조관리기준(EU-GMP) 인증을 획득하는 등 글로벌 진출을 준비해 왔다.

피노멜은 환자의 회복을 촉진하는 지질 성분인 오메가3와 오메가6를 이상적으로 배합한 3세대 영양수액으로 정제어유(20%), 정제대두유(30%), 올리브유(25%), MCT(25%) 등 4가지 지질 성분과 포도당, 아미노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유럽에서 출시된 3체임버 영양수액 중 오메가3 성분 함량이 가장 높고 비타민E가 포함되어 있어 필수영양소 공급뿐만 아니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JW생명과학 관계자는 “1959년 수액 국산화에 성공한 이래 국내 시장을 선도해온 JW가 꿈의 무대라고 여겼던 유럽에 첫 발을 내딛는 뜻 깊은 순간”이라며 “앞으로도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 신기술과 신제품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미래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기준(IMS데이터) 3체임버 종합영양수액의 글로벌 시장은 8억 5300만 달러(한화 약 1조183억 원) 규모다. 이중 유럽 시장은 약 5억 7400만 달러(한화 약 6839억 원) 규모로 전체 시장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질 미생물’ 통해 조산 예측

이대목동병원 김영주 교수팀  
질내 웨이셀라·박테로이데스 요인  
향후 몇 년 내 진단 키트 개발 전망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

국내 연구진이 산모의 질내 미생물을 통해 조산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향후 몇 년 내 질 분비물을 통해 조산을 예측하는 진단 키트 개발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팀은 산모 질내 미생물 가운데 ‘웨이셀라(Weissella)’와 ‘박테로이데스(Bacteroides)’가 정상 분만과 조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산 예측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연구논문을 11일 공개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위해 5개의 대학병원에서 조산의 위험이 있는 58명의 여성의 질 분비물을 수집하고 DNA를 추출해 조사했다. 이 결과 락토바실러스 크리스토퍼티(L. crispatus)와 박테로이데스가 동시에 우점한 산모 9명은 모두 조산 분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산모 중에서 웨이셀라의 풍부함이 높은 산모 5명은 37주 이상의 정상 분만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임신기 동안에 미생물은 면역 또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변화하고, 질 내 락토바실러스(Lactobacillus)의 안정성과 우점도는 임신의 유지와 분만에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웨이셀라와

박테로이데스를 통해 조산 예측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임산부의 질 내 미생물의 특성을 조사해 조산과 관련이 있는 미생물을 찾아내는 것은 조산의 예측에 큰 도움이 된다”며 “따라서 추후 미생물이 조산을 일으키는 기작을 밝히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고위험 임신 중 조산을 예측하기 위해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 연구 과제를 수주 받아 임산부의 질 분비물 내 사이토카인과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연구팀은 국내 특허 등록 및 특허협력조약(PTC)을 진행 중이며, 몇 년 내에 이를 진단 키트화 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16S 메타제노믹스를 이용한 한국인 임산부의 질내 미생물 프로파일 분석’이란 제목으로 미국 생식면역학회지 5월호 인터넷판에 게재됐다.

/이세경 기자

# “엄마아빠, 힘내세요”... 저소득 가정 ‘육아용품’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저출산 분위기 속 육아 응원 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10일 김덕수 본부장과 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저소득 영유아 보육가정에 전달할 ‘건이강이 나눔상자(육아용품 세트)’를 직접 제작했다.

11일 공단에 따르면 임직원으로 구성된 건이강이봉사단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심각한 저출산 분위기 속에서 보람찬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 아빠들을 응원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김덕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임직원들이 10일 직접 제작한 6000만원 상당의 ‘건이강이 나눔상자(육아용품 세트)’를 저소득 가정에 전달했다.

필요한 유아용 세제, 목욕용품 및 담요 등 총 6000만원 상당의 나눔상자 500개를 함께 만들어 전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서울본부 김덕수 본부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건이강이 봉사단과 함께 적극적이고 맞춤형 사회공헌을 펼쳐 공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 바이오제네틱스, 의약품 수입 허가

## ‘경남제약 인수’ 유통망 활용 극대화

바이오제네틱스가 의약품 수입업 허가를 획득하고 최근 인수한 경남제약 유통망을 활용을 극대화 한다.

바이오제네틱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등의 수입업 허가를 획득하였다고 11일 밝혔다.

바이오제네틱스 관계자는 “최근 인수한 경남제약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일반의약품 및 헬스케어 제품을 도입해 우수한 판매망을 가진 경남제약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대만, 스위스, 프랑스,

미국 기업들과 도입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회사측은 바이오제네틱스가 도입한 품목과 경남제약의 유통망이 지속적으로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제네틱스 안주환 대표는 “품목 도입은 바이오제네틱스의 항암제 바리티닙과 ASLAN003 등을 도입했던 인프라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바이오제네틱스의 경남제약 인수 이후 양사간 협력 모델의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세경 기자

#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사랑의 헌혈 운동

중앙대 헌혈센터와 3년간 캠페인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10일 본사 7층 대강당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랑의 헌혈 운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생명나눔 실천 및 부족한 혈액 부족 문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번 헌혈 운동에는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동아제약 등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2017년부터 중앙대학교병원 헌혈센터와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헌혈센터는 헌혈 받은 혈액은 국가 방침에 따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들이 10일 서울 용두동 본사 7층 대강당에서 헌혈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라 다른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헌혈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 GC녹십자셀 면역항암제 ‘이문셀엘씨주’ 재발방지 효과 확인

국제 암 학술지 최근호에 게재

세포치료 전문기업 GC녹십자셀은 면역항암제 ‘이문셀엘씨주’의 실제 임상자료(RWD) 논문이 국제 암 학술지 ‘BMC Cancer’ 최근호에 게재됐다고 11일 밝혔다.

실제 임상자료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서울대병원 (소화

기내과 이정훈 교수팀)과 삼성서울병원(소화기내과 이준혁 교수팀)이 이문셀엘씨주를 처방 받은 59명의 간암환자와 처방 받지 않은 간암환자 59명의 재발 없는 생존과 안전성 데이터를 비교한 연구결과다.

실제 임상자료에서 이문셀엘씨주를 처방 받은 간암환자의 재발 위험은 62% 감소했으며, 이전에 시행된 대규

모 3상 임상시험의 재발 위험 37% 감소, 추적관찰(5년) 임상시험의 재발 위험 33% 감소했던 결과보다 더욱 우수한 재발방지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이문셀엘씨주를 투여한 환자의 간암 사이즈 및 간경변증 비중이 대조군에 비해 높았으나, 재발은 줄어들어 우수한 치료효과를 입증했다.

/이세경 기자